

신경계 염증



대한신경과학회

TEL. (02)737-6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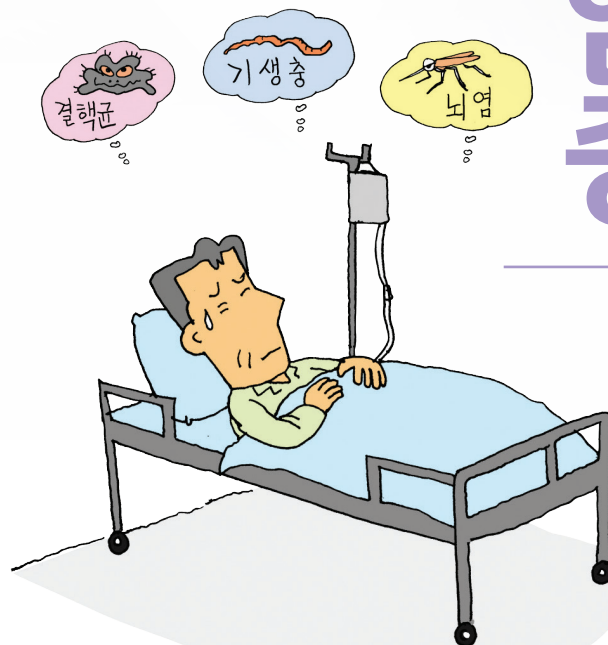
FAX. (02)737-6531

www.neuro.or.kr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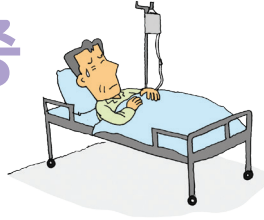
신경계 염증



신경과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 ⑫

신경계 염증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1982

Contents

뇌수막염과 뇌염은 어떻게 다른가요? 03

뇌염의 증상과 원인 04

감염성 뇌염의 종류, 진단, 치료 06

자가면역성 뇌염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나요?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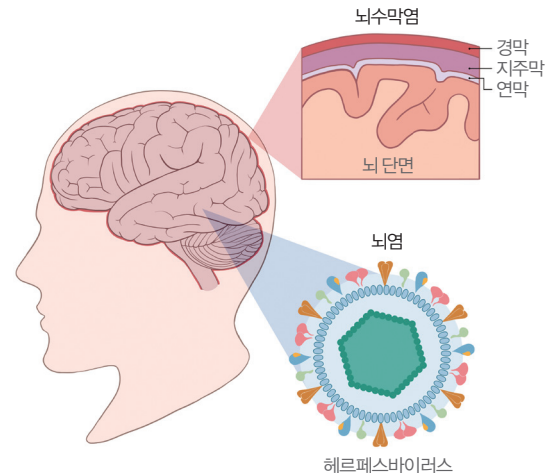
뇌염은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인가요? 1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뇌수막염과 뇌염은
어떻게 다른가요?

뇌는 바깥쪽에 뇌막과 머리뼈로 보호받고 있으며 뇌와 뇌막 사이에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뇌수막염은 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과 뇌척수액에 염증이 생기는 상황을 말하고, **뇌염**은 뇌수막을 포함하여 뇌의 안쪽까지 염증이 침범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뇌수막염은 두통과 발열이 주로 발생하지만, 뇌염은 뇌의 기능인 생각, 언어, 운동 등에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합니다.



뇌염의 증상과 원인

뇌염 환자는 대부분 며칠 이내에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린 것처럼 의식이 저하되는 환자가 많습니다.

또한 경련 발작도 일부 환자에서 나타납니다. 치매처럼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증은 몸의 조직이 변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뇌의 염증은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감염성 뇌염**이 있으며, 감염되지 않았는데 생기는 **비감염성 뇌염**의 원인은 자가면역성 뇌염이 대부분입니다.

감염성 뇌염은 전체 뇌염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감염성 뇌염에서는 고열, 두통, 몸살 또는 구토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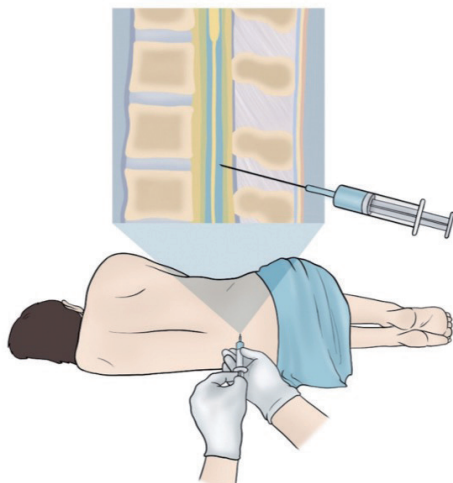


감염성 뇌염의 종류, 진단, 치료

잘 알려진 감염성 뇌염으로 일본뇌염이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모기를 통해 인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바이러스도 일본뇌염과 같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 뇌염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세균은 바이러스보다 큰 생물체로, 뇌염을 직접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나 몸의 다른 곳에서 퍼진 경우도 있습니다.



▲ 뇌척수액 검사

결핵균, 기생충, 곰팡이도 드물지만 뇌염을 일으키는 원인 생물체입니다.

이러한 감염성 뇌염은 **뇌척수액 검사**와 **혈액 검사**로 진단을 합니다.

뇌척수액 검사는 허리에서 척추관에 바늘을 삽입하여 뇌척수액을 채취,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중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구부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 후 베개를 베지 않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4~6시간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뇌전산화단층촬영(CT)이나 뇌자기공명영상(MRI)와 같은 영상 검사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감염성 뇌염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항균제, 항결핵약, 항진균제를 주사나 먹는 약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자가면역성 뇌염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나요?

면역은 세균과 같은 외부 병원체의 침입에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자가면역성 뇌염은 면역 세포나 **면역 세포가 만들어 내는 항체가 뇌를 잘못 공격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혈액이나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자가면역 항체를 검사하는 것이 확정 진단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수 십가지의 항체를 모두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흔한 일부 항체를 검사하게 되어 항체만으로는 모든 진단이 어렵고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 뇌자기공명영상(MRI), 뇌척수액 검사 등을 바탕으로 신경과 전문의가 진단**을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폐와 같은 다른 장기의 종양이 원인인 경우가 일부 있어 **종양 검사도 필수**입니다.

자가면역성 뇌염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이용하게 되며, 증상의 호전이 더딜 경우에는 이차 면역 약물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종양이 발견된 경우 종양 제거도 함께 시행합니다.

뇌염은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인가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뇌염은 오래 전에는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질환이었습니다. 항생제 등의 약제, 그리고 최근 자가면역 뇌염의 발견은 뇌염의 진단과 치료에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후유증이 남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감염성 뇌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예방접종**과 함께 연령 및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뇌염,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겠습니다. 뇌염은 증상이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 발생시 재빨리 의료 기관에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신경계 염증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위에 **신경과**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대한신경과학회 홈페이지
“**일반인을 위한 공간**”과
“**가까운 신경과 찾기**”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홈페이지
www.neuro.or.kr